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의 정재영입니다.

이번 투어는 산업혁명 도시들을  
탐사하는 여행입니다.

1936년 1월 소설가 조지 오웰은  
코벤트리에서 버밍엄, 맨체스터

위건, 셰필드, 리즈, 반즐리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그 여행길은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잉글랜드 북부의 실업상태와

그곳 노동자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웰은 위건에서 가장 긴  
3주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이곳에서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노동자들과 면담했고 근처의 탄광을  
3번 직접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석탄 산업은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의 탐사 기록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로  
출간되었습니다.

오웰이 찾은 도시들은 산업혁명  
시대에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남북으로 버밍엄에서 맨체스터까지  
동서로는 리버풀에서 반즐리까지

이어지는 이 산업도시들은  
유럽여행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여행 코스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여행의 큰 주제가  
인간의 삶의 형식과 삶의 조건을

철학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라면  
산업혁명의 산실인 이 지역을

건너뛰는 것은 균형 잡힌

여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조건도

산업혁명 이후 교통의  
발달 때문이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700년에는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데  
25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끝자락이 되는  
1800년대는 16시간으로 확 줄어듭니다.

런던까지 가려면 한 달 정도를  
잡았던 여행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1박 2일 여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귀족이나 갈 수 있었던  
장거리 여행도

산업혁명 이후에는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합니다.

이번 산업혁명 도시 탐사는  
도시 속으로 뛰어드는 여행이 아니라

도시 간 여행으로  
잡았습니다.

때로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구경도 할만합니다.

특히 산업혁명이라는 대 변혁의 무대  
산업 도시 탐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자주 등장하죠?

역사적 용어로서 산업혁명은  
18C 후반에 시작해서

19C 초반까지 영국에서 일어났던  
급격한 산업 변화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760년부터 1840년까지

영국에서 농업 또는 가내수공업  
경제가 기계에 바탕을 둔

공장제 공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19C 사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같은 저서 <산업혁명>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만 나타난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19C 전반에는 프랑스,  
19세기 후반에는 독일과 미국

이어서 20C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인간의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근대 세계는  
민주주의로 가는 정치혁명

산업화로 치달은 산업혁명과 함께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C 역사학자 홉스봄은  
이것을 이중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업혁명 도시 투어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기술의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식으로  
전개되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왜 영국에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드라마틱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기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웰강 옆 캐슬 필드,

맨체스터의 심장입니다.

로마인이 이곳에 성을 쌓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곳이

다시 맨체스터의 상징이 된 것은  
1761년 리치 워터 운하가 개통되고

1830년에 맨체스터와  
리버풀을 잇는

세계 최초의 증기 여객 노선이  
개통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출발했던 자리는

지금 과학 산업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맨체스터의 별칭은 코트노폴리스  
곧 면의 도시죠.

인간이 실을 뽑아서 직물을 만든 것은  
수렵생활을 버리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역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여러 겹의 면사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면포를 만든 것은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입니다.

방적기의 왕 아크라이트는  
산업혁명의 아버지

또는 면화 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혁명의 영웅입니다.

그는 맨체스터 근처에 있는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집안의 일곱째 아들로  
태어난 이발사 출신이었습니다.

머리 염색으로 소자본을 모았고요.  
후에 면 방적업에 눈을 돌려

아크라이트 방적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언으로 아크라이트는  
기사 작위를 받았습니다.

산업혁명 영웅 1호쯤에  
해당되죠.

과학 산업 박물관에서  
어쨌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아크라이트 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아이콘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제임스 와트죠.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의 주역은 단연  
스팀 엔진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발명자로 자주 인용됩니다.

와트가 어린 시절 물이 끓는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 거리는 걸 보고

골똘히 바라보다가 증기기관 원리를  
생각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지만

이것은 그냥 위인전용  
에피소드쯤으로 여기면 좋습니다.

와트의 증기기관 이전에  
이미 상용화되었던

증기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입니다.

뉴커먼 증기기관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덩치가 커서  
물 소모가 많았죠.

석탄도 당연히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까우면서도

탄광 가까운 곳에 설치한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도구 제작자 제임스 와트는  
뉴커먼 기관을 개선했습니다.

그의 새 엔진은 실린더 열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속의 증기만 냉각시키는  
방식이었죠.

엔진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연료가 적게 들고

물 소비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와트 엔진은  
탄광지대나 물가가 아닌 곳에서도

쉽게 기계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과 기차에도  
엔진을 장착할 수 있었죠.

스티븐슨이 만든 로켓이라는  
증기기관차가 여객을 싣고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803년에는  
미국 허드슨강에

와트의 증기 엔진을 장착한  
증기선이 진수되었습니다.

이제 산업도시들을 다른  
관점에서 탐사해 보죠.

프랑스 출신의  
문명비론가

이폴리트 텐의 시선을  
먼저 살펴봅니다.

텐은 1859년에 맨체스터를  
방문했습니다.

"해 질 무렵 하늘이  
구릿빛으로 변하고

평원 위에 기묘한 모양의  
구름이 걸려있다.

오벨리스크만한 높은 굴뚝  
수백 개가 서 있다.

검고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은 바벨탑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더러운 벽돌로 된 공장의  
벽이 계속 이어져 있다.

아무런 장식도 없고, 창문에는  
걸창조차 없다.

마치 거대한 감옥 같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내는 소리로 귀가 먹먹해진다.

그들은 이곳에 가두어져서 통제된다.  
발은 가만히 두고 손만 움직인다.

그들은 매일 밤낮으로 기계를 위해  
기계적으로 일한다.”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맨체스터는 두 개의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면의 도시  
코트노폴리스(Cottonopolis)죠.

다른 하나는 충격 도시  
쇼크 시티입니다.

전자의 별명에서는  
이 도시의 자부심이

후자의 별칭에서는  
자조가 묻어납니다.

근대 세계로 진입하는 길목에서는  
거의 모든 도시가 풍경이 바뀌죠.

런던도 그렇습니다.  
상업 지대에는 거대한 창고가 들어서고

부두에는 콜리앗 같은 시설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고 건물이  
도시 풍경을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맨체스터는  
달랐습니다.

공장 굴뚝이 교회 첨탑보다  
더 높이 솟았고

철도 고가 위로는 증기기관차가  
키 작은 집을 내려 보면서

연기와 증기를 동시에 뿜으면서  
내달렸습니다.

디즈레일리는 소설  
<코닝스비>에서

공장의 창문이 이탈리아 궁전  
창문보다 많고

공장 굴뚝은 이탈리아 오벨리스크 보다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텐이 지나간 후  
70~80년 후에

오웰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산업도시 풍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방으로 탄광 쓰레기 더미의  
음울한 풍경이 펼쳐져 있고

북쪽으론 더미들 사이의 골짜기로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들이 보였다.

운하는 재가 뒤섞인 얼어붙은  
진창길이었는데

이리저리 나막신 자국이  
무수히 나 있었다.

식물은 전부  
추방된 세상 같았다.

연기, 혈암, 얼음, 진창, 재,  
구정물밖에 없는 풍경이었다.

위건은 셰필드에 비하면  
아름다운 도시다.

내가 보기에 셰필드는  
구세계에서 가장

흉측한 곳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셰필드는 인구 50만의  
도시이면서도

동부의 평범한 마을 500곳을  
합친 것보다 번듯한 건물 수가 적다.

악취는 또 어떨까!

가끔가다 유황 냄새가  
안 날 때가 있는데

그건 그보다 독한 다른  
가스 냄새가 날 때라서 그렇다.

한 번은 길거리에 멈춰 서서  
공장 굴뚝 수를 세어본 적이 있다.

서른세 개까지 션는데,  
매연 때문에 공기가 뿌영지 않았다면

훨씬 더 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산업도시에서 인간은  
벌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산업도시로  
몰려들었을까요?  
--음성 안 나옴

"어느 날 나는 중류 계급의 신사  
한 사람과 맨체스터를 거닐었다.

나는 그에게 창피스럽고도 불행한  
빈민굴 이야기를 하고

그 도시의 공장 노동자들이  
사는 곳의

구역질 나는 상태에 대해  
그의 주의를 끌어 보았다.

내 평생 이렇게 엉망으로 세워진  
도시는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신사는 참을성 있게 듣고 있더니  
길모퉁이에서 헤어지려 할 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는  
많은 돈을 벌고 있는걸요.

안녕히 가십시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유럽은  
이데올로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자본주의 씨앗은  
중세말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지만

새로운 산업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에든버러 투어에서 살펴본  
애덤 스미스의 근대 경제학은

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장 소유주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투쟁으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적 소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이상 사회를 꿈꾼 사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도  
맨체스터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후에 공장 소유주가 되기도 한  
로버트 오웬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최초의 노동자 운동가 그룹

오웬주의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오웬에게

공상적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영국의 주류 철학은  
사회계약의 기본이념으로

자유주의를 내걸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와  
밀의 자유주의가 그것입니다.

오늘의 정치이념 진영에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영국에서 자유주의는  
급진 철학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빅토리아  
런던 투어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데올로기 과잉은  
낭만주의 사상을 불러오기도 했죠.

산업혁명 시대 바로  
위쪽에 자리한 호수 지방으로

한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자연과 역사의 독특한 해석을 보여준  
토머스 칼라일이 대표적입니다.

산업도시들은 어제의  
용역이 아니라

오늘의 과세에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업 이후의 탈산업화 증후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면화의 도시 맨체스터  
철강의 도시 셰필드

양모의 도시 리즈  
그리고 광산촌 도시 리건

이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문을 닫은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 그리고 실업문제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도시를 창조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그 전환이 구호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탈산업화된 공장지대에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로 탈퇴 곧 브렉시트는  
북부 산업도시

백인 노동자들의 불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문득 지난 세기말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

<폴 몬티>가 떠오릅니다.

철강도시 셰필드에서  
실직한 공장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누드쇼를 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코믹하게  
그린 아이러니가

영국 특유의 유머와 좀 어쩐지  
동떨어진 느낌이어서

관객을 슬프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실업과 엔터테인먼트는  
항상 동행하는 법인가요?

그리고 보니 이곳 산업도시들은  
규모가 작은 타운들도

좋은 축구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건도 그렇습니다.